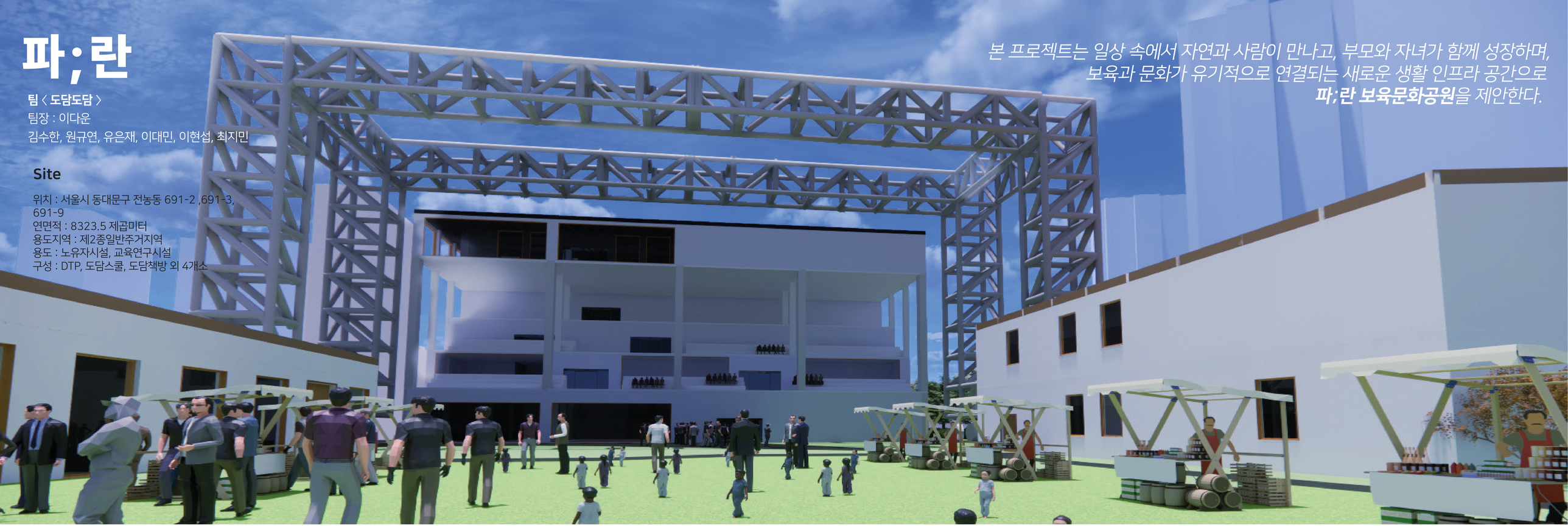
# 파;란


**팀 〈 도담도담 〉**
팀장 : 이다운
김수한, 원규연, 유은재, 이대민, 이현섭, 최지민


###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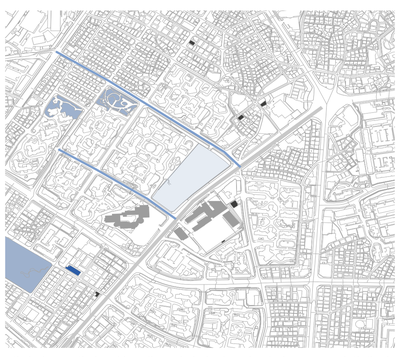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691-2 ,691-3, 691-9
연면적 : 8323.5 제곱미터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 :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구성 : DTP, 도담스쿨, 도담책방 외 4개소



*본 프로젝트는 일상 속에서 자연과 사람이 만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며, 보육과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생활 인프라 공간으로* ***파;란 보육문화공원****을 제안한다.*

## # SITE ANALYSIS

대상지 인근에는 33개의 어린이집·유치원, 11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분포해 있으며,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교육 및 보육시설은 다수 존재하지만,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이나 동적인 참여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재개발 및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특성상, 향후 아동과 **육아 관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대상지
- 어린이집, 유치원
- 초, 중, 고등학교
- 답십리 도서관: 이용자가 많아 과부하 상태이며, 정적인 활동 위주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또한, 용도에 따른 유연한 활용이 어렵다.
- 주변 녹지 현황
- 대상지 주도로
- 대상지 주진입로

대상지는 8개의 교차로에 둘러싸여 있으며, 반경 200m 이내에 버스 정류장 4곳이 위치하고 청량리역과도 약 500m 거리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도보 접근 또한 용이하지만, 주요 도로에 인접해 차량 통행량이 많아 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한 동선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대상지를 관통하는 도로는 서울시 내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 중 하나로, 진출입로 설계 시 교통 혼잡을 유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대지 주변에는 등산로를 제외하면 공공성이 확보된 녹지가 총 3곳에 불과하며, 이 중 2곳은 아파트 단지 내 사적 공간으로 공공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는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에 접근하거나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답십리 도서관을 제외하면 아동, 청소년, 부모, 노인 등 다양한 세대를 위한 명확한 **커뮤니티 공간이 거의 없으며**, 유동 인구에 비해 공공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장소 또한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답십리 도서관 역시 밀집된 주거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공간이 지하에 조성되어 있어 활동 영역이 제한적이다. 많은 아동들이 방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나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하지 않으며, 지역 내 생활 거점으로서의 역할 또한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지에는 **확장된 기능과 열린 구조를 갖춘 새로운 공공 프로그램의 도입이 요구**된다.

## # CONCEPT

유아, 청소년의 알

사회적, 언어적 미성숙한 유아
배타적인 지역 육아 커뮤니티

**성장의 한계**
**사회적인 틀**

예비부모, 부모의 알

육아 지식이 부족한 부모
부모 교육, 산모 케어 시설 부족

**파;란(破;卵)**
알을 깨고 나오다.

: 모든 연령층이 정해진 틀을 깨고 함께 성장하는 복합 공간
연령대, 혹은 거주구역 등 분절의 알을 깨고 나아와 연령과 거주 지역 구분 없이
한데 모여 성장하는 복합 시설로 다가가고자 한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부숴야 한다. "*

- 『데미안』, 헤르만 헤세 -

**부모의 파;란**

부모 교육을 제공하여
**현명한 부모로 성장 촉진**

**아동의 파;란**

차별화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창의력, 신체 발달 촉진**

**지역 주민의 파;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문화 경험**

## # MAIN FOCUS

### 1) 녹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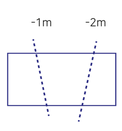
동대문구는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2.27㎡/인으로, 서울시 평균(13.08㎡/인)의 5.76분의 1에 불과하다. 공원 면적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기존 공원들은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근린공원에 한정되어 있어 접근성과 활용도가 낮다. 이러한 녹지 부족은 주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도심 속 휴식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의 기반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도심 속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녹지의 확보**는 본 프로젝트에 가장 필요한 과제라고 여겨진다.

### 2) 기존 부지 활용 유지

본 부지는 동대문 도서관 건립 이전까지 **'지식의 꽃밭'**이라는 이름의 생활 공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93%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실제 이용자 응답 중에는 "도서관보다 공원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을 만큼, 이 공간은 지역 주민에게 단순한 휴식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30,000㎡ 에 달하는 넓은 부지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기존 공원의 기억을 존중하고 계승하여, 보육/문화 시설과 함께 **녹지와 산책로가 녹아든 공공 건축 설계**를 제안한다.

### 3) 복합 아동 문화시설 부족

동대문구에는 아동을 위한 놀이터나 시설은 존재하지만,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 특히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닌,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지역 기반의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공간**은, 일상 속 돌봄과 배움, 여가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 4) 보육시설의 분리 필요성

대상 부지는 DTP와 같은 일반 시민 이용 공간과 산책로가 함께 있는 복합 이용지다. 따라서 유아 및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은 일정 수준의 분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은 펜스를 두르는 방식으로 외부와 구분하지만, 본 프로젝트는 자연스러운 완충과 경계 설정을 통해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꾀한다. 도담생태교실과 도담숲 주변 공간인 '뜰'은 프라이버시 확보와 기능적 분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며, 유연한 공간 흐름을 유도한다.

## # PROGRAM

[보육 프로그램]
우리는 보육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 심리학자 장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피아제는 아동이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연령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고 보며, 이를 감각운동기(02세), 전조작기(27세), 구체적 조작기(7~11세), 형식적 조작기(12세 이상)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의 연령대를 분류하고, 각 발달 단계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 감각운동기 유아를 위한 오감놀이터, 전조작기 아동을 위한 스토리텔링 도서관, 구체적 조작기 아동을 위한 초등부 체험존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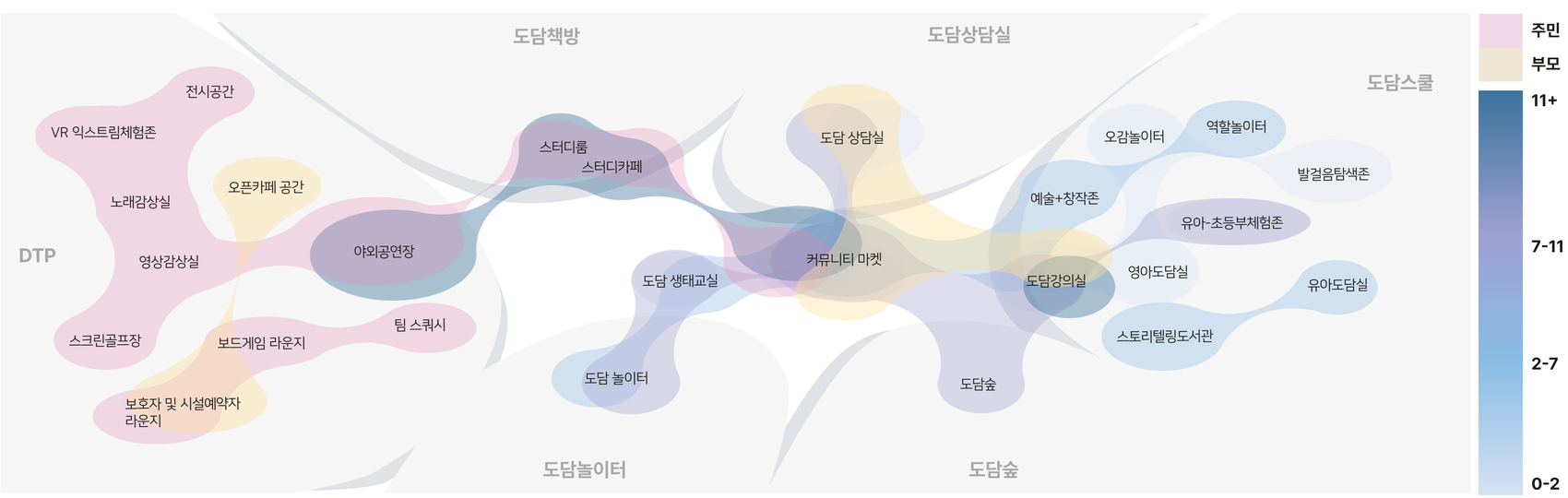
**[커뮤니티 프로그램]**
7세 이상의 아동부터 청소년, 그리고 지역 주민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은 보육시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이 공간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의 성장을 지지하는 '공동 양육'의 장이자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내는 장소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전시 공간을 통해 백일장, 학생 예술작품 전시 등 창작과 전시, 감상이라는 활동을 매개로 아동과 지역주민이 공존한다. 야외 이벤트 공간에서의 계절별 축제, 가족 운동회, 플리마켓 등이 개최될 수 있는 열린 마당은 일상의 동적인 흐름을 만드는 중심 장치로 작용한다.

**1. 감각운동기(0~2세)**
- 감각과 운동을 통해 세상을 인식
- 대상 영속성 발달 (보이지 않아도 존재함을 이해)

**2. 전조작기(2~7세)**
- 상징적 사고 가능 (모래는 음식, 막대는 칼)
- 자기중심성 (다른 사람의 관점 이해 어려움)
- 보존 개념 미발달

**3. 구체적 조작기(7~11세)**
- 보존 개념 이해 (물의 양은 컵 모양이 달라도 동일함)
- 분류, 서열화 등 논리적 사고 가능, 그러나 구체적인 사물에 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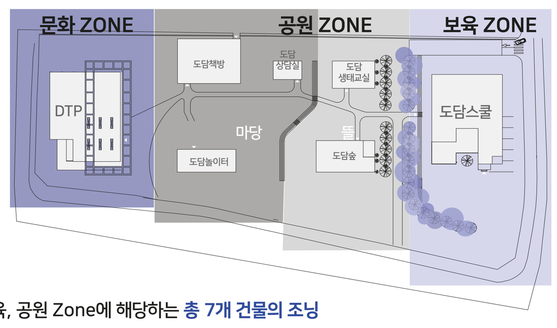
**4. 형식적 조작기(11세 이상)**
- 추상적·가설적 사고 가능
- 과학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발달




## # AERIAL VIEW

## # ZONNING & MOVEMENT

### # ZON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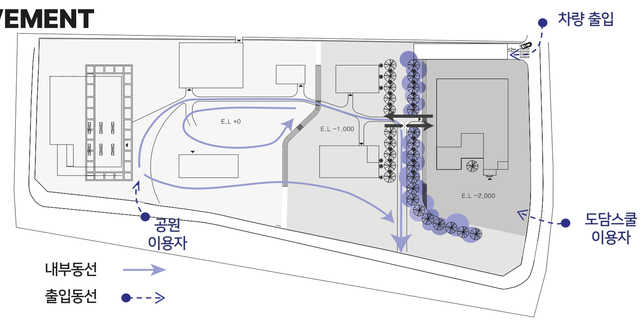



**문화, 보육, 공원 Zone에 해당하는 총 7개 건물의 조닝**
**[문화존]**
- 융통성 확보 + 데드스페이스 감소를 위한 가변형 건물 도입
- 육아친화도시 이미지 형성, 지역주민들의 유입 유도를 위한 랜드마크성 건물

**[공원존]**
- 보육 Zone과 문화 Zone의 완충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녹지와 산책로를 제공

**[보육존]**
- 2~11세의 영유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담이나 벽에 의한 단절 대신, 공원존(뜰)에 의해 보호되는 프라이빗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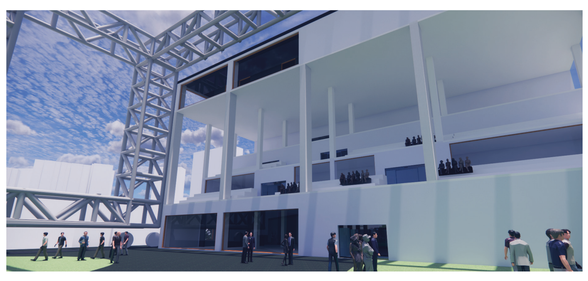
### #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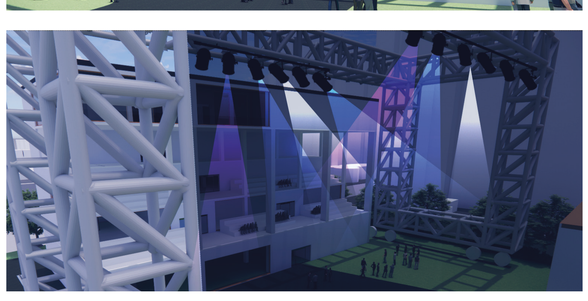



공원이용자는 공원 존을 가로질러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담스쿨 이용자의 동선과 구분된다.
물론 도담스쿨⇒공원 zone으로의 동선도 있으나 공원이용자 입장에서 유도되는 주동선은 아니며,
나무로 시야를 가려 도담스쿨로 쉽게 향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도담스쿨에서는 공원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지만 그 반대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방향적 동선**을 가진다.

### DTP

[전시 + 공연]을 지원하는 공간이자, 볼 수 있는 공간
건물 전면부에 가변형 철물을 설치하여 변화하는 입면을 구성
변화 전 후로 단면이 변화하고, 늘어난 공간에서는 사람들이 공연을 즐김





### 도담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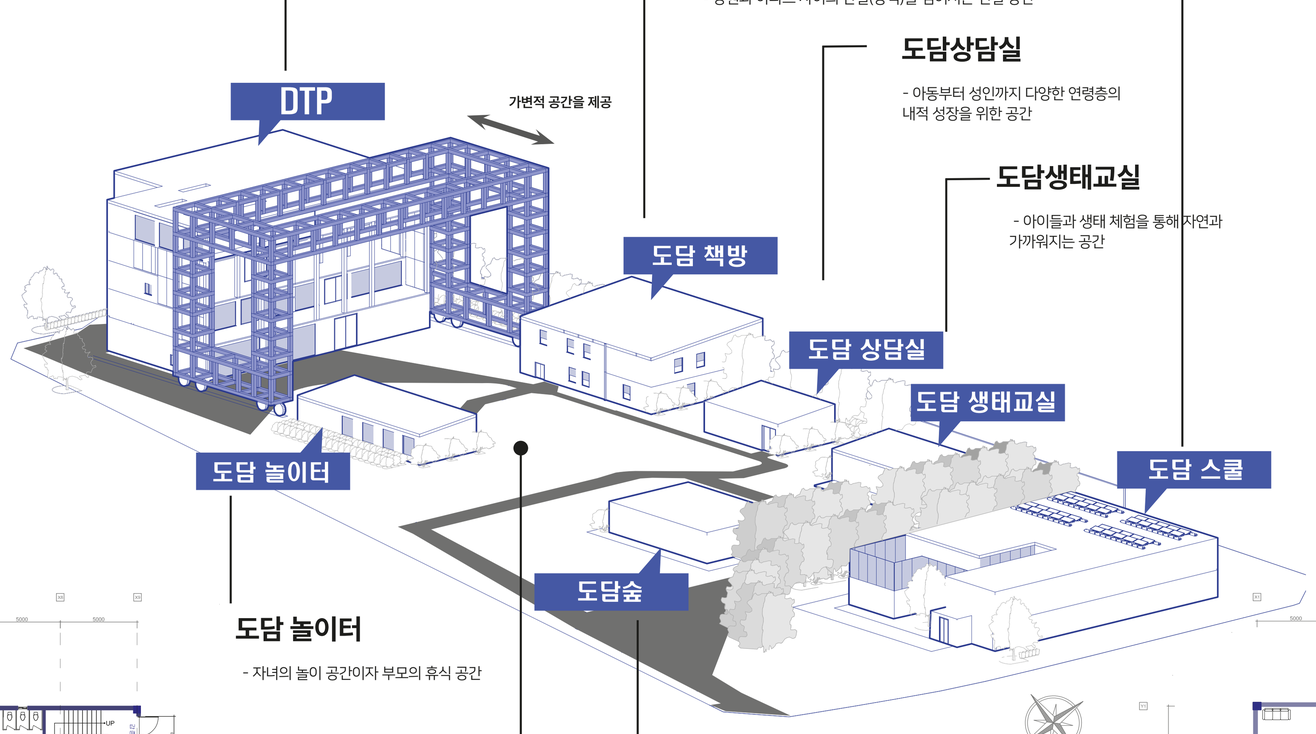
-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부 공간이자, 휴식 공간
- 공원과 아파트 사이의 단절(옹벽)을 넘어서는 연결 공간

### 도담상담실

- 아동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내적 성장을 위한 공간

### 도담생태교실

- 아이들과 생태 체험을 통해 자연과 가까워지는 공간




### 도담 놀이터

- 자녀의 놀이 공간이자 부모의 휴식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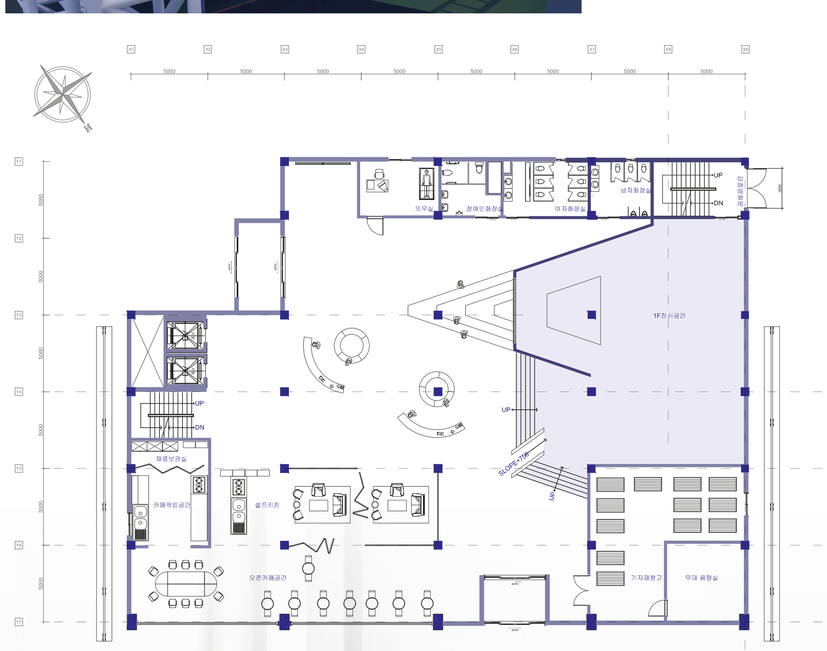
### 도담숲

- 온실 주위에 텃밭을 매개로 한 주민들과 화합의 공간

공원 존의 부지

### 도담스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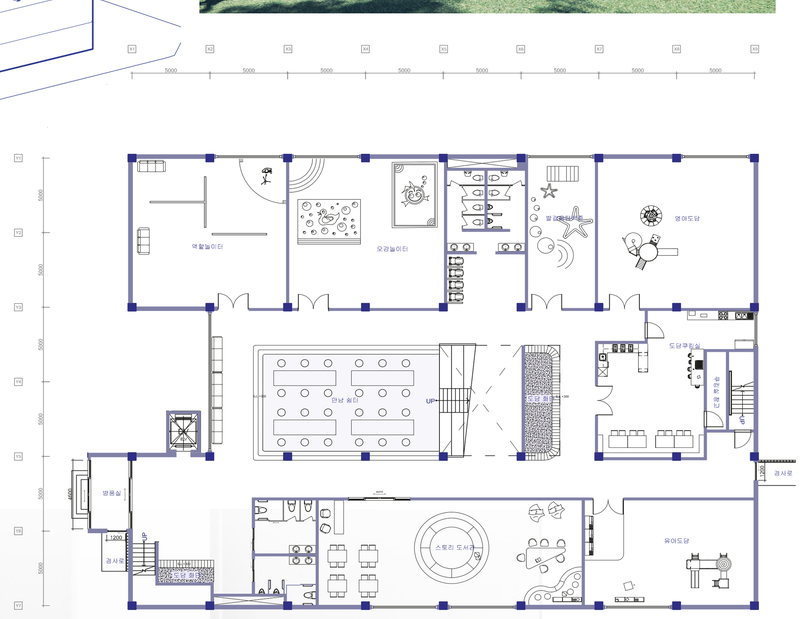
- 영유아 보육 및 부모 교육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
- 부모와 자녀가 놀이/상담/요리를 통해 추억을 쌓는 공간




1:300



## # SECTION
1:250




1:300